

지역 소식통

성덕초, 지역협력 교육과정 운영

김제시 성덕면에 위치한 성덕초등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마을협력형 어울림학교로 지정되어 올해까지 3년째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와 마을간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영비를 교부받아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특색사업으로 학생강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감사 지원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왔다.

학교 측에서는 지난 16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덕초와 학생강당, 성덕면사무소와 긴밀한 회 지리를 마련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소, 시민건강대학 졸업식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난 16일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민건강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40명과 가족, 친지를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시민건강대학은 지난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4개월 간 매주 금요일 건강 체조와 교양 강좌를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출석률이 좋은 32명에게는 개근상을 수여했다.

학사모에 학사복을 입은 어르신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서로 안아주고 사진도 찍으며 추억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정들었던 학우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복지센터, 농가 일손 도와

김제시 교월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태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16일 동장을 비롯한 직원 10여명이 제월동 월림마을의 한 과수농가를 찾아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돕고 농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교월동에서 재배하는 유일한 열대과일인 패션 프루트(Passion Fruit)라는 아열대 과수의 '꽃 수정작업' 등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는데 전문 농업인이 아닌 직원들이 서툰 손으로 작업하는 일이다보니 농가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김태한 교월동장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손돕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국토청, 완주 자전거도로설치 규정 무시 공사 진행

“예산 확보해 도로 확장해야”

익산국토관리청이 자전거도로에 설치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사중인 자전거 도로가 갑자기 좁아져, 이대로 변경 없이 공사가 완공되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국토관리청이 완주군 삼례읍 하리에서 봉동읍 장거리 일원에 2017년 3월부터 2021년 2월 (총사업비 1.12억 9,700만원)까지 발주하고, S 사가 감리하며, A·B 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곳 현장은 익산국토관리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양방향(3m)을 고려한 설계 원칙을 무시하고 자전거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설치 규정에는 폭은 도시지역 일 방향 1.5m(양방향 2.4m), 지방지역 일 방향 1.5m (양방향 3.0m) 공원, 하천, 둔치 일 방향 1.5m(양방향 3.0m)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셈이다.

한 전문가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법규까지 위반 하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심했다"면서 "예산을 확보해 좁아진 자전거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자전거도로에 설치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갑자기 좁아지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군민에 안전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변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좁은 자전거 도로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봉동에서 이곳 자전거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D 모씨는 "자전거도로가 일정하게 가다가 갑자기 좁아지면 사고 위험이 그 만큼 높은 것 아니냐"면

서 "이는 익산국토관리청에 '졸속행정'이 다고 비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설계도에는 양방향 3m 되어 있다"면서 "예산부족 등으로 이같은 상황이다"면서 "빠른 시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거쳐 반영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쌀수탈 근대역사 벨트 조성... 차별화 나선다

완주군, 교육극 제작·3D 역사교실 등

완주군이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에 나선 가운데 교육극 제작, 3D 역사교실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근대유산 가치를 극대화 한다.

지난 16일 완주군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선도사업 일환으로 쌀 수탈 역사와 관련한 역사교육극 제작, 역사교실, 탐방학습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역사교육극은 쌀 수탈 관련 역사를 공연극 형식으로 제작해 관람객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전문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삼례스캔들, 1914〉란 가제로 공연의 기획, 홍보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출가, 완주문화재단 전문가가 맡아나가고 있다.

오는 10월 초연을 목표로 현재 시나리오 작성 중에 있다. 대본 작업이 완

료되면 배우 오디션을 진행할 예정으로 배우에는 관내 대학교 예술학과와 주민들이 참여한다.

역사교육프로그램으로는 '완주군과 함께하는 역사교실', '나눔역사교실', '학교 밖 역사교실', '현장탐방학습' 4가지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팝업북, 큐브, 3D 증강현실을 활용한 역사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완주군과 함께하는 역사교실은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한국사와 쌀 수탈 관련 근대사를 교육하는 것이며, 나눔역사교실은 소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에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또 학교 밖 역사교실은 학교가 아닌

관내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이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집 등이 그 대상이다.

현장탐방학습은 근대역사자원을 직접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완주군의 근대유산인 구 삼례양수장, 구 만경강 철교, 구 삼례양곡창고(삼례문화예술촌)를 돌아보게 된다. 현장탐방은 당일과 1박2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역사교실을 이끄는 강사들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강사들로 포진했다.

이용렬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교육 프로그램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곧 공개될 역사교육극도 〈선녀와 나무꾼〉, 〈청춘의 꿈〉, 〈콩쥐팍쥐편〉 등 여러 편의 주민참여형 창작뮤지컬을 제작할 자력이 있어 일제 수탈과 항쟁의 역사를 재밌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완도군, 교류활성화 물꼬 튼다

완도 특산품 하루 만에 다 판매되는 성과 거뒀

전남 완도군은 최근 자매결연도시로서 활발한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공무원들과 완도의 특산품을 홍보 판매하는 민간대표자(10여명)들이 김제시를 방문 대대적인 교류 활성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4일 자매결연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완도는 특화된 자원과(수산물 생산지 8%) 잠재력을 활용하여 21c 신해양시대의 중심에서 해양문화, 해양산업, 레저휴양산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하는 선진해양 도시로서 지난 4월 2017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를 24일간 개최하는 등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산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새만금 중심 국제해양도시를 지

향하는 김제시와 많은 유사한 점들이 있으며 새만금 신항만조성, 내부개발 등에 의한 새만금 해양산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교류와 실질적인 상생발전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 방안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무추진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김제시는 양도시 간의 주요행사, 민간교류차원에서 진행되는 우리시의 농 특산물 홍보 및 판매, 자원봉사 불런투어, 문화예술 동호회 간 우호 교류 등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류에서 완도군 특산품에 대한 김제시민,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80%의 물량의 특산품이 하루 만에 다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1인 창조기업 공간 지원 나서

완주군이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를 위해 공간 지원에 나섰다.

지난 16일 완주군은 1인 창조기업 설립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사무공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입주업체를 모집 중이다. 이곳에서 6개월간 임대료 없이 머물 수 있으며 무선인터넷, 사무기기, 각종 편의시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간은 '스페이스코워'이라는 명칭으로 이서면 안전로에 마련돼 있으며 완주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 1인 창조기업에

게 열려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5명 미만 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지식서비스업, IT 기반 서비스, 제조업 등 372개 업종을 말한다.

을 상반기 이곳에는 디지털콘텐츠, 영상 제작, 공연 기획 등 4개 기업이 입주해 지원을 받았다.

하반기 입주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공동체협력과(063-290-2482) 또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063-290-2487~8)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동진 농어촌공, 가뭄 저하천수 확보 비상대책 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병수)는 최근 가뭄대책상황실에서 각 부장과 지소장, 물관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기 가뭄 극복을 위한 저수량관리 및 하천수 확보 비상 대책 회의를 실시하였다.

지난 4월 28일 백파통수시설 시작으로 청정쌀 생산과 안전영농 목표로 절수·절약하여 현재 94%의 모내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속된 가뭄이던 현상으로 강우량이 급격하게 하락된 가운데 급된 강수량은 226mm(전년대비 49%)로 전년보다 238mm가 적어 동진지사 주 수원인 섬진제

저수량이 현재 92백만톤으로 6월말에는 정상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진지사에서는 금강수계를 활용한 만경양수장, 백구양수장을 24시간 가동조치하였고, 한해대책을 양수기 설치, 수문단속 5개반 편성, 이장단 및 대표농업인 2천여명에게 절수를 위한 홍보협조문 발송, 물관리자동화(TM/TC)시스템을 이용하여 적기·적량의 농업용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